

녹색성장: 구조적 측면에서의 제언*

유 태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교수)

‘녹색성장’은 현재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여러 차례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보여지듯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2010년 4월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이러한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9년 2월부터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시킨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또한 10대 정책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생활의 녹색혁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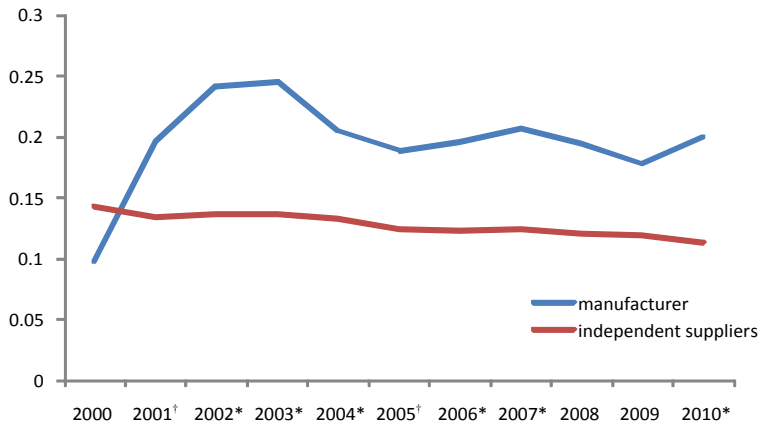
녹색성장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의 충실한 역할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성장위원회의 10대 정책방향의 세부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녹색성장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실제적 역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논문과 정책제언들이 기업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에 주목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과 중소기업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금융이 기업과 시민의 녹색성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 측면에서 여신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노희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동학술행사(2011. 6. 15(수), 롯데호텔 37층 가네트스위트룸), 「새로운 경제전략 녹색성장 :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진, 2011),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대기업과의 협력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김종대, 2011). 큰 방향에서 이러한 제안과 제시는 녹색성장의 초기 도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과 제시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심사숙고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우선 금융측면에서 우리는 세제혜택과 같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금융정책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오늘날의 IBK기업은행은 원래 명칭이 ‘중소기업은행’이었으며, KTB(원래 ‘한국기술개발’로 활동)와 같은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금융정책/기관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이 활성화 되었는가? 기업정책 측면에서 선단정책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협력과 같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되고 시행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수익률과 성장률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다. 깊이 있는 연구와 실효성 있어 보이는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원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은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같은 결과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실제 행위를 담보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보완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였다고 본다. 즉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시장 참여자의 언행일치를 담보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1〉 완성차 업체와 비계열 부품사간의 매출이익률 차이



Note: † $p < 0.1$; * $p < 0.05$.

언행이 불일치하는 시장 참여자의 행위를 조직이론에서는 상징경영(Symbolic Management)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탈동조화(Decoupling)라고 부른다. 우리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상징경영을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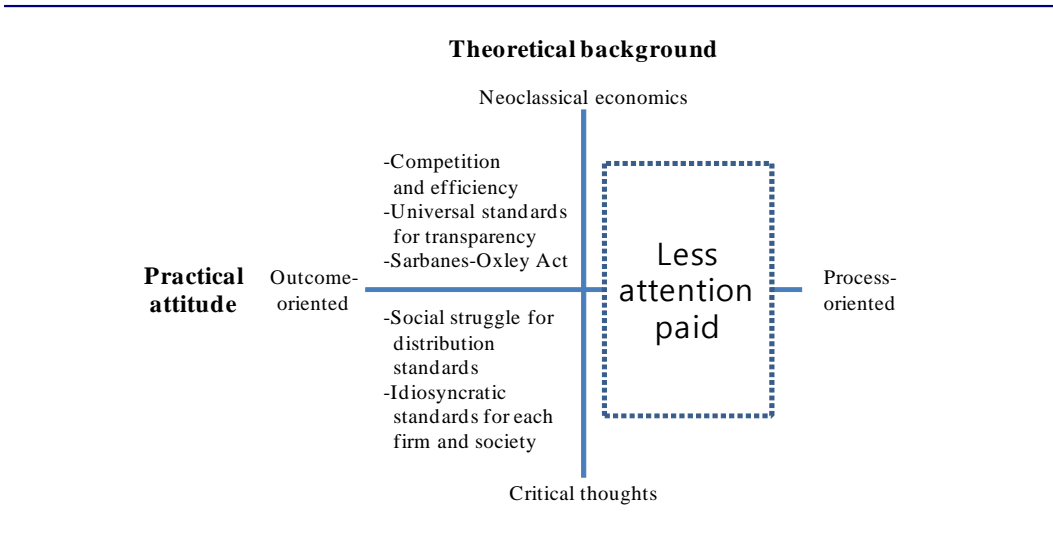
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제언에 더한 참여자의 행위를 담보하는 틀을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협력 방안을 보자. 우리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대/중소기업의 협력이라고 하는 정부정책이 상징경영에 따른 탈동조화 현상을 보여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림 1>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비계열 부품사간의 매출이익은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차이를 보여 왔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문제되는 것은 단순한 이익률의 차이를 넘어서, 매출이익의 차이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평균적 R&D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매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Nam and Yoo, 2011). 즉 매출이익의 차이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향후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축소시키며, 결국에는 기업들의 성장률을 갉아 먹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의 많은 대/중소기업 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이익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산업전체의 연구개발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상징경영을 억제할 수 있는 틀, 즉 구조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방안과 중소기업정책 역시 구조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Enron, 그리고 Worldcom과 같은 미국 대기업에서 발생하였던 회계 부정 사건, 그리고 2008년 발생하였던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의 현재 결과에만 치우쳐 있고, 미래 성장성을 과약 하는데 소홀히 한 학계, 언론, 업계의 관행,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결과 위주의 회계제도가 있음에 주목한다. 즉,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평가 받는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분기보고서(quarterly report) 또는 연간보고서(annual report)가 현재의 실적을 반영할 뿐이지 미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반영 하는 데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문적 이론과 이념적 지향을 불문하고 실행적 측면에서 현재의 성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향이 현재 성과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불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다시 자동차 산업의 예에 대입해 보면, 결과 중심적인 학문적 이론과 실무적 행위로 인해 정부 및 학계의 다양한 정책과 제언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간의 실제적인 협력을 촉진하지 못하고 상징경영에 따른 탈동기화 결과를 불러왔고, 이는 매출이익의 지속적인 차이를 불러오고 종국적으로는 산업 내에서 평균적인 연구개발의 부진 및 매출성장의 감소를 불러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소기업의 실제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실제 활동을 분명히 드러내어 언론, 업계, 학계 등에서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예로서 우리는 <그림 2>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기업간 협력을 비롯한 과정중심의 기업활동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연간 보고서의 체제 개편/보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결과중심의 기존 회계 제도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우리의 본래 관심사인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하여 보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제안되는 의제들이 긴요하고 실제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제들을 실제 집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체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접근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대, 2011,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공동학술행사 ‘새로운 경제전략 녹색성장: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에서 발표 (6. 15).
- 노희진, 2011,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자본시장 역할과 정책과제, 공동학술행사 ‘새로운 경제전략 녹색성장: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에서 발표 (6. 15).
- Nam, Giseok and Taeyoung Yoo, 2011, Accounting and Growth of the Firm: A Process Approach based on Societal Relationship, presented at the 27th EGOS Colloquium Gothenburg Sweden (July 9th).